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예술인행동 '장'

내일 5·18민주광장서 추모문화제 김화순 작가 주도로 예술인 모여 흥성담 화백 등 80여명 한자리에 걸개그림·릴레이 버스킹 등 진행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일보한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해요.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성찰하게 된 거죠. 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그림을 안 그릴 수 없어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민중적 색채를 화폭에 새겨온 김화순 작가 필두로 광주 예술인 8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행동 '장'을 펼친다. 한자리에 모인 예술인들은 저마다 대형 걸개그림부터 기억물품 만들기, 릴레이 버스킹 등 문화프로그램을 이어간다.

경계없는 자발적 모임인 예술인행동 '장'은 꽤 역사가 오래된 추모행사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광주에서는 19개

마을에서 촛불모임이 생겼다. 이는 훗날 시민상추모모임이 된다. 한달에 한번 곳곳에서 '추모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밝혀지는 촛불모임에서 광주 예술인들은 뭐라도 해야 했다. 기억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 진상규명을 바라는 손그림...

시간이 흘러 2015년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꽤 많은 예술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됐고, 한 달에 한번씩 거리에 나와 난장을 펼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각자 후원금을 모으고 개인 무대 장비를 보따리처럼 지고 나와 추모행사를 이어갔다. 한 달에 한번 모이던 것이 1년에 한번 모이는 해도 있었지만 위로와 연대로 사회적 메시지를 다루겠다는 예술인들의 의지가 꺾인 적은 없다.

이번 10주기 예술인행동 '장'은 코로나 이후 다시 크게 여는 추모의 장이다. 김화순 작가가 10주기 행사 감독을 자처, 순식간에 80여명이 모였다. 민중미술 1세대 오월의 화가 흥성담 화백부터 샌드아티스트 주홍, 연극인 추말숙, 광주 밴드 우물안개 구리, 놀이패 신명, 풍물패 등 셀 수 없다. 이 중에서는 10주기 행사 감독을 맡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6일 5·18민주광장에서 예술인행동 '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 예술인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행동 '장' 제공

김화순 작가는 유독 작품에 '세월호'가 많이 등장하는 광주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다. 대표작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4인을 그린 작업이다. 우재아빠를 그린 '팽목에 살다', 순범엄마를 그린 '광화문에서다', 세호아빠를 그린 '아버지 삼열씨는 우릴 보고 웃는다', 영석엄마를 그린 '그날'까지. 단순한 유가족 초상화가 아니다. 배경

엔 역사적 현장을 채운 세월호 참사의 여러 스토리를 희미하게 기록해냈다. 팽목항의 풍경부터, 세월호 참사에서 촉발된 촛불혁명, 이순신 광장의 세월호 추모부스 등, 지난 10년간 유가족들이 버텨낸 장소들이 깨알같이 그려져 있다. "예술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하는 사람들이니

간요.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화폭에 새기고 싶어요.”

한편 이날 예술인행동 '장'에 이어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지역문화제'가 오후 6시40분부터 열린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한국 민요를 기록한 여정을 담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한 장면. ACC 제공

## ACC, 수요 아카이브 클럽·음악 감상회 운영

### 4~6월 특별열람실서 진행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특별열람실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수요 아카이브 클럽'과 '수요 음악 감상회'를 운영한다.

ACC 소장 아카이브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한 '수요 아카이브 클럽'은 오는 17일, 5월 8일, 6월 5일 아시아문화 박물관 특별열람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과 여성, 문화정치에 대한 아카이브와 기록을 살펴본다.

먼저 17일에는 이민규 그래픽 디자이너가 지역, 여성, 현장의 관점으로 한국 디자인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 책 '이영희는 말할 수 있는가?'의 기획과 제작 경험을 공유한다. 또 민동인 그래픽 디자이너가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의 12가지 요리법을 담은 책 '식탁은 걷는다'의 기획·제작 과정을 들려준다.

오는 5월 8일 배우연 서강대 연구교수가 5·18민주화운동 다음 해 벌어진 국가 이벤트 '국풍81'부터 '제24회 서울올림픽(88올림픽)'까지 1980년대 3S(Sports, Sex, Screen)라고 불린 문화정책의 이면을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오는 6월5일 2009년부터 전남 순천시에서 '예술 공간 돈키호테'를 운영하고 있는 박해강, 이명훈 기획자(연구자)의 '전남미술사총서-1900-2015'의 연구·조사

과정을 알아본다. 광주·전남 미술사 연구, 활동, 아카이브에 대한 지향도를 돌아보고 그 공백이 된지 이야기를 나눈다.

오는 24일, 5월22일, 6월19일 상반기 '수요 음악 감상회'에서는 한국 재즈부터 민요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이라 여겨졌는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4일 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가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재즈 역사를 풀어낸다. 오는 5월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함께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음반 '예언'을 발매하는 디제이 소울스케이프(DJ Soulscape)가 한국 경음악과 재즈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 제작기를 공유한다.

6월19일 최상일 전 MBC PD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로 30년 동안 한국민요를 기록한 여정을 포함해 세계 민속음악 탐방기를 들려준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는 소장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해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지하 4층 특별열람실은 ACC 아카이브와 시청각 자료를 열람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애용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광주 서구문화원, 제21회 전국애송시낭송대회 연다

### 내달 17일 접수 마감

"아름다운 글로 된 시, 한 번 낭송해 보실래요?" 광주 서구문화원은 오는 5월17일까지 제21회 전국애송시낭송대회 예선 접수를 진행한다.

전국 애송시낭송대회는 광주 서구문화원에서 21회째 운영하는 전국 행사로 아름다운 우리말과 좋은 시낭송 문화를 보급해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시낭송 인구의 문화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 총 2회에 걸친 심사로 진행된다.

예선은 전국대회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한 시낭송에 관심 있는 전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1부

와 애송시 낭송 녹음파일·낭송시(등단 시인의 시) 원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 심사위원들의 예선 심사를 통해 5월 24일 본선 진출자 발표가 이뤄진다.

본선은 오는 6월18일 예선 합격자를 대상으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

서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1명에 상금 100만원과 상장·시낭송가 인증서, 금상 1명은 50만원과 상장·시낭송가 인증서, 은상 2명에 1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이어 동상과 장려상에도 각각 부상과 상장을 수여한다.

정인서 서구문화원 원장은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를 통해 대회 30여명 이상 수상자 배출로 시문학 및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예술 행사를 마련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본대회 관련 신청 자료는 광주서구문화원(www.gjsgcc.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062-681-4147)로 문의. 도선인 기자



## 광주문화재단 제작 단편영화 '혼자' 전주국제영화제 상영

### 너와필름과 공동... 장애인식개선

광주문화재단이 너와 필름(대표 오태승)과 공동으로 제작한 장애인식개선 단편영화 '혼자'가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상영된다. 영화 '혼자'는 광주문화재단의 2023 광주형장애예술지원사업 일환으로 제작됐다.

올해 25회째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하반기 개최되는 부산영화제와 함께 한국

대표 영화제로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영화계 대표 행사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1~10일 '우리는 늘 선을 넘지'를 주제로 열린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는 역대 최대인 총 1513편이 출품됐으며 공식 상영작으로 총 232편(국내 102편·해외 130편)이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과 너와 필름이 공동 제작한 단편영화 '혼자'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국내 단편영화 50편 중 하나

로 선정돼 '코리안 시네마 섹션'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단편영화 '혼자(감독 이경호)'는 시각장애를 가진 주인공 선미가 갑자기 독립하게 되면서 북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말 없는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다. 이경호 감독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일상적인 풍경을 일기처럼 그리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영화는 5월 3일 메가박스 전주 객사 7관에서 첫회 상영된다.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13회 광주독립영화제에도 '메이드 인 광주' 섹션에 선정돼 상영된다. 도선인 기자